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과 오해

- 경찰관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

Perceptions and Misunderstandings of Polygraph Testing

- Comparis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llege Students -

박 희 정*

차 례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폴리그래프 검사의 일반적 인식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

• 국 문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거짓말탐지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경찰관은 검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학생은 이와는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 해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인식하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 진술이 다를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다수의 경찰관은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해도 수사절차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하나 대학생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끝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폴리그래프 검사, 인식, 오해, 경찰관, 대학생

*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폴리그래프 검사관, 오사카대학 심리학 박사

I. 서론

최근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 지문, 유전자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용의자의 진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¹⁾의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

경찰백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폴리그래프 검사 의뢰건수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11,111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보다 약 2,771건 증가한 수치이다.³⁾ 이러한 증가현상은 폴리그래프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수사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근래에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 판결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폴리그래프 검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⁴⁾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1) 폴리그래프 검사(Polygraph Testing)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심리적 변화로 수반되는 호흡반응, 피부 전도반응, 심혈관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Bull, 1988).

2) 김석찬 외, “폴리그래프 검사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 연구: 검찰청 폴리그래프 실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1), 2015, 13-31쪽.

3)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44> (2018. 7. 17. 검색)

4) 2003. 10. 10. 대판 2003도3463과 1999. 12. 28. 대판 98도4181을 살펴보면, 본문 중 진술인의 신빙성 판단자료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제시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강력사건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배심원들의 공정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은 검사를 받으러 온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며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가져다줄 수 있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폴리그래프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알려진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정보는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잘못된 지식과 추측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기존 연구

폴리그래프 검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사 정확성과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은 실험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실험연구에서는 모의 범죄 상황을 설정하여 거짓집단과 진실집단으로 구분한 후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와 비교하는 것으로 정확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현장연구에서는 실제 수사현장의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와 법원 판결결과를 비교하거나 용의자들이 자백한 사건을 기준으로 실제적 진실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측정한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폴리그래프 검사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⁵⁾

두 번째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는 폴리그래프 검사의 이론적 취약점, 검사의 오류 가능성 등의 한계점을 들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학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⁶⁾ 이와 같이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가 어떠한 검사이며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한 검사인지 등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5) Honts, C. R., The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In P. Granhang and L. Stromwall(Eds.), *Detection of deception in forensic contexts* (pp. 103-12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정재영 외, “상반된 주장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판별 정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2010, 1-10쪽.

6) Iacono, W. G., The detection of deception. In J. T. Cacioppo, L. G. Tassinary, & G. G. Berntson(Eds.), *Handbook of psychophysiology*, 2nd edition (pp. 772-79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askin, D. C., & Honts, C. R., The comparison question test. In M. Kleiner(Ed.), *Handbook of polygraph testing* (pp.1-47).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2002; 최정학,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경희법학, 44(1), 2009, 9-33쪽.

2. 폴리그래프 검사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폴리그래프 검사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Myers 외(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yers 외(2006)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⁷⁾ 그들은 먼저 참가자들에게 배심원의 입장에서 재판과 관련된 짧은 글을 읽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글을 읽게 하였으며, 다른 한 집단에게는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한 집단에게는 거짓반응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유무죄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이 때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유무죄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검사 정확성 및 유용성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가 지문, 유전자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지 등에 대한 질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는 유무죄 판결 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특히,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시받은 두 집단 중 진실반응을 증거로 제공받은 집단은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을 62%로 추정하였으며, 거짓반응을 증거로 제공받은 집단은 정확성을 68%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정확성을 낮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

7) Myers, B. 외, "The court of public opinion: Lay perceptions of polygraph testing", *Law and Human Behavior*, 30, 2006, pp. 509-523.

8) Myers 외(2006)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유무죄 판결 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시받은 집단 중 진실반응을 제공받은 집단은 평균 1.88이었으며, 거짓반응을 제공받은 집단은 평균 1.65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는 유무죄 판단 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는 지문, 유전자, 목격자 진술, 진술분석보다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검사의 유용성 면에서는 66.7%가 폴리그래프 검사를 유용한 진단도구로써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결 시 다양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유무죄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판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써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조사 및 잘못된 지식에 대한 연구가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 기법 중 숨김정보검사(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를 주로 활용하는데, 建内 외(2010)는 경찰청 직원 중 폴리그래프 검사를 이용한 경험이 없고 검사와 관련된 교육 및 강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⁹⁾ 그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가 거짓말 자체를 탐지하는 것으로 응답한 수가 51.9%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검사결과의 증거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45.7%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⁰⁾ 즉 경

9) 建内利彦 외, “犯罪捜査で使用されるポリグラフ検査に対する意識調査”, 日本心理学会第74回大会発表論文集, 2010, p. 455.

10) 일본은 1950년대 후반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를 시작으로 검사결과를 증거로써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8년 2월 8일 최고재판소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를 피검사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함에는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폴리그래프 검사 상황 등을 고려해본 결과 검사 결과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1966년 6월 30일 동경고등재판소의 판례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일반적인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기준으로는 ① 검사에

찰관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신뢰성은 높게 평가하였으나 반수 이상의 경찰관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짓말 자체를 탐지하는 기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財津(2014)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실제 폴리그래프 검사와의 비교를 통해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다.¹¹⁾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배심원으로 선발된 일반인들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도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물론 財津(2014)는 폴리그래프 검사 중 숨김정보검사 기법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학계의 적극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 검사결과와의 오류 가능성 및 법적 증거능력 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폴리그래프 검사기법에 대한 정보는

사용되는 기기의 성능 및 조작기술 등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인정될 것, ② 검사자가 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③ 결과서에는 검사자가 실시한 검사의 경위, 결과를 충실히 기재하여 작성할 것, ④ 피검사자가 해당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할 것, ⑤ 피검사자의 심신상태가 정상일 것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또한 과학적 증거로써 신뢰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Daubert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숨김정보검사(CIT)는 Daubert의 4가지 기준인 검증성, 오류율의 명확성, 동료연구평가(peer review)의 존재, 전문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인지 유무에 대해 만족하는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Ben-Shakhar & Kremnitzer, 2011). 따라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숨김정보검사(CIT)는 법정 증거로써 활용되고 있다.

11) 財津亘, “ポリグラフ検査に対する正しい理解の促進に向けて”, 立命館文學, 636, 2014, pp. 32-43.

주로 검사를 활용하는 수사기관 내에서만 공유되며 외부로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추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전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일반인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피검사자들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기 전 인터넷 혹은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이 받게 되는 검사가 어떤 검사이며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 검사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 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 136명에게 검사에 대한 사전 조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74%(101명)가 인터넷 및 주변인을 통해 검사의 정확성 및 법적 증거능력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물어보았다고 응답하였다.¹²⁾ 대중매체나 주변인을 통해 얻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지식은 올바른 정보와 더불어 잘못된 지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찰관의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수사상 폴리그래프 검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12) 제시된 연구결과는 ○○경찰청에서 2016년 하반기 폴리그래프 검사실에 검사를 받으러 온 용의자 136명(남성 95명,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검사전 면담 시 용의자들에게 인터넷 등 매체 및 주변인을 통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용의자 136명 중 101명이 검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복답변을 포함하여 사전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86%(87명)는 검사 정확성 및 오류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66%(67명)는 법적 증거로서의 활용여부, 기타 13%(14명)는 긴장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부시 불이익의 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가 어떠한 검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때 수사 경찰관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경찰관 및 일반인들이 검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로 만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은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제시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도 습득하게 된다. 이 때 배심원이 폴리그래프 검사가 어떠한 검사이며,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오류율을 가지는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검사결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혹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배심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검사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우선 폴리그래프 검사 대상이 되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과 검사를 의뢰하는 경찰관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잘못된 인식과 그 진실에 대해 설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79명과 경찰관 12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D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본 설문지는 거짓말탐지 검사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임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경찰관의 경우 ○○경찰청 수사, 형사 및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경력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모든 설문내용에 응답하지 않은 2명의 경찰관 및 8명의 대학생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생 171명(남성 81명, 여성 90명)과 경찰관 118명(남성 103명,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문항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는 먼저 建内 외(2010)¹³⁾의 연구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의 특성 및 정확성과 증거활용 여부에 관한 3문항을 발췌하였다. 또한 ○○경찰청에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러 온 용의자 136명(남자 95명,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13) 建内利彦 외, 앞의 논문, p. 455.

리고 인터넷 상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주로 질문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용의자들의 자유 진술한 내용과 인터넷 상 발췌한 내용을 KJ법을 활용하여 분류, 항목화하였다.¹⁴⁾ 질적으로 유사한 문항을 동일문항으로 묶었으며, 각각의 문항 내용으로부터 공통점이 있는 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문항을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학 석사과정 10명(남성 2명, 여성 8명)에게 거짓말탐지 검사 인식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고 중의적 의미의 문항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최종 수정한 설문문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폴리그래프 검사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

연번	설문 문항
1	거짓말탐지 검사는 정확하다
2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한다(*의심 등 심리적 불이익 제외)
4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다를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반드시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아야한다
5	거짓말탐지 검사는 신뢰할 수 있다
6	오래된 사건이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면 검사가 가능하다
7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 거짓유무를 탐지할 수 없다
8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Myers 외(2006)의 연구¹⁵⁾를 참고하여 두 집단 모두

14) KJ법은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기와기타 지로(川喜田二郎)가 개발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질문지 조사를 위해 질문문항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대상자에게 자유 기술을 실시한 후 질문 내용 중 질적으로 유사한 문항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 항목화하여 조사에 활용할 질문문항을 작성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거짓말탐지 검사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거짓말탐지 검사와 다른 물리적 증거(예: 지문, 유전자, 목격자 진술) 중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나열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 경험유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경찰관의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 의뢰경험 및 수사경력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폴리그래프 검사라는 정식명칭 대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짓말탐지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거짓말탐지 검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경험하는 죄책감, 불안 등의 심리적 변화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를 폴리그래프라는 장비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해 진실과 거짓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며 검사 시 활용되는 질문형식 및 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 설문지 상 명시하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절차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15) Myers, B. 외, 앞의 논문, pp. 514-515.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은 총 289명 중 남성 184명, 여성 10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1.7세(SD=4.8)였다. 경찰관 집단 118명의 평균연령은 41.3세(SD=7.6)였으며 남성 103명과 여성 15명이었다. 경찰관 집단의 수사경력은 평균 8.2년(SD=6.4)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8년이었으며, 검사의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7명, 의뢰경험이 없는 경우가 1명이었다. 그리고 대학생 집단 171명의 평균 연령은 22.2세(SD=2.1)였으며 남성 81명과 여성 90명이었다. 대학생 집단 중 거짓말탐지 검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169명이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명이었다.

2.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식 차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면, ‘거짓말탐지 검사는 정확하다’는 질문에 대해 경찰관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67.8%로 가장 많았던 반면, 대학생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가 40.9%로 두 집단 간의 응답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55.79, p<.001$)(표 2). 거짓말탐지 검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경찰관은 76.6%(SD=18.6), 대학생은 62.8% (SD=17.0)로 경찰관이 대학생보다 거짓말탐지 검사의 정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7)=6.51, p<.001$). 그와 더불어, 거짓말탐지 검사와

다른 물리적 증거(예: 지문, 유전자, 목격자 진술) 중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대해 경찰관의 경우 유전자(55.9%)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문(41.5%), 목격자 진술(4.1%), 거짓말탐지 검사 순이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전자(62.0%)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문(33.9%), 목격자 진술(4.1%), 거짓말탐지 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거짓말탐지 검사는 다른 물리적 증거보다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경찰관(63.6%)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39.8%)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21.42, p<.001$).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질문에 대해 다수의 경찰관(84.7%)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9%로 두 집단 간의 응답 빈도에 차이가 나타났다($\chi^2(2)=75.25, p<.001$).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다를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반드시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질문에 대해 경찰관은 52.5%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6.5%로 경찰관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75.96, p<.001$). ‘거짓말탐지 검사는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경찰관 77.1%, 대학생 33.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나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각각 36.8%, 29.2%)이 경찰관(각각 12.7%, 10.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52.17, p<.001$). ‘오래된 사건이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면 검사가 가능하다’에 대해 두 집단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했지만(경찰관 71.2%, 대학생 56.7%),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

(17.5%)이 경찰관(8.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7.34$, $p<.05$).

〈표 2〉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식 차이 (단위 %)

설문문항		집단		전체	χ^2
		경찰관	대학생		
거짓말탐지 검사는 정확하다	그렇다	67.8	24.0	41.9	55.79***
	아니다	14.4	40.9	30.1	
	모르겠다	17.8	35.1	28.0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31.4	39.2	36.0	21.42***
	아니다	63.6	39.8	49.5	
	모르겠다	5.1	21.1	14.5	
검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다	11.9	40.9	29.1	75.25***
	아니다	84.7	33.3	54.3	
	모르겠다	3.4	25.7	16.6	
진술이 다들 때 거짓말탐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다	44.1	86.5	69.2	75.96***
	아니다	52.5	7.0	25.6	
	모르겠다	3.4	6.4	5.2	
거짓말탐지 검사는 신뢰할 수 있다	그렇다	77.1	33.9	51.6	52.17***
	아니다	12.7	36.8	27.0	
	모르겠다	10.2	29.2	21.5	
오래된 사건이라도 기억을 한다면 검사 가능하다	그렇다	71.2	56.7	62.6	7.34*
	아니다	20.3	25.7	23.5	
	모르겠다	8.5	17.5	13.8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 거짓유무를 탐지할 수 없다	그렇다	54.2	63.5	59.7	14.13**
	아니다	39.0	20.6	28.1	
	모르겠다	6.8	15.9	12.2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	57.6	84.7	73.6	54.73***
	아니다	33.1	1.8	14.6	
	모르겠다	9.3	13.5	11.8	

*** $p<.001$, ** $p<.01$, * $p<.05$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경우 거짓유무를 탐지할 수 없다’에 대해 두 집단에서 절반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chi^2(2)=14.13, p<.01$).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해 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지만(경찰관 57.6%, 대학생 84.7%),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찰관(33.1%)이 대학생(1.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54.73, p<.001$).

종합해보면, 거짓말탐지 검사에 대해 경찰관과 대학생 두 집단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짓말탐지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경찰관은 검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학생은 이와는 다소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인식하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진술이 다를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짓말탐지 검사의 법적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경찰관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응답비율(39.8%)은 높지 않았다. 경찰관의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해도 수사절차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하나 대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외 두 집단 모두 오래된 사건이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면 검사가 가능하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는 거짓유무를 탐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거짓말탐지 검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위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과 대학생 간 인식 차이가 큰 문

항 및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오해와 진실

1) 거짓말탐지 검사는 정확하다.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¹⁶⁾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한다. 먼저 실험연구에서는 어떤 물건을 훔치는 가상 범죄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거짓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훔친 행위에 대해 폴리그래프 검사 시 거짓말 할 것을 요청하고, 진실집단의 참가자들에게는 훔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그 후 모든 참가자들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와 실제 진실유무와의 일치여부를 통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얻어진 검사 정확성은 대략 91%로 진실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진실로 판단하는 오류부정(false negative)은 9%이며, 진실한 사람을 거짓으로 판단하는 오류긍정(false positive)은 11%로 나타났다.¹⁷⁾ 특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당사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시 정확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미

16)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은 검사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Gougler, Nelson, Handler, Krapohl, Shaw, & Bierman, 2011).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 경찰 및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비교질문검사 기법을 중심으로 검사 정확성을 설명하였다.

17) Honts, C. R., 앞의 책, p. 109.

18) 정재영 외, 앞의 논문, 3-6쪽;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polygraph and lie detec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pp.

국의 NRC보고에 의하면, 단일 사건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은 86%에 반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당사자의 검사 정확성은 98%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영 외(2010)에 의해 상반된 주장 시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판단불능을 포함한 정확율은 86.5%였으나, 판단불능을 제외한 정확율은 진실조건과 거짓조건 모두 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범죄사건에 상반된 주장을 하는 피검사자들의 경우 한 사람의 결과가 진실이면 다른 한 사람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단일 검사에 비해 정확성의 기저율이 50%이므로 검사 정확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장연구는 경찰, 검찰 등에서 실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결과와 검찰 처분결과 및 법원 판결결과와 비교하거나 용의자가 자백을 한 사건을 기준으로 실제적 진실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측정한다. Honts(2004)는 4건의 현장연구를 종합하여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용의자의 자백을 기준으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확성이 대략 90.5%였으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거짓일 때의 정확율이 98%이며, 진실일 때의 정확율은 75%로 나타났다.¹⁹⁾ Honts(2004)의 연구에서는 오류긍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실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의 경우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검사 중 용의자들의 행동 등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시킬 수 있는 독립된 평가자에 의해 도출된 폴리

29-60.

19) Honts, C. R., 앞의 책, pp. 111-112.

그래프 검사결과를 활용하였다.²⁰⁾ 그러나 실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들의 결과로 정확율을 도출하였을 경우 진실에 대한 정확율은 95.6%였으며 거짓에 대한 정확율은 95.2%로 오류긍정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에서는 우리나라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법원 최종판결 일치도가 83.6%였으며,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판정되었을 때의 일치도는 90.8%로 나타났다.²¹⁾

종합해보면, 폴리그래프 검사는 대략 90%이상의 정확성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폴리그래프 검사 정확성이 90%이긴 하나 나머지 10%의 오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실제 죄가 없는 용의자라 할지라도 수사관들에게 의심점을 주어 추가 조사 및 추궁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가능성과 무고한 희생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절차 수행과 검사 전 면담 내용에 대한 스크립트화 및 검사에 활용할 질문 선정 시 검사관의 상호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차트판독 시 교차검증을 통해 결과 판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나아가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으

20) Honts, C. R., 위의 책, p. 112.

21) 김석찬 외, 앞의 논문, 24-25쪽.

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발각에 대한 불안, 죄책감 등의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²²⁾ 진실한 사람들도 특정 정서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진실한 사람의 경우 거짓말탐지 상황의 예측 불확실성 및 과거 자신이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²³⁾ 진실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불안의 요소는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생리적 반응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김고은 외(2013)는 거짓말탐지 상황에서의 용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²⁴⁾ 그들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려 온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전 불안, 죄책감 및 수치심 등에 대한 심리상태를 측정하였으며 용의자 집단 중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실집단과 거짓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심리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불안정도에 있어서 진실집단과 거짓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불안이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고은 외(2013)는 폴리그래프 검사 상황에서는 불안 이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들이 검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실집단과 거짓집단 간 경험하는 불안의 이유와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²⁵⁾ 따라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진실집단의 높은 불안수준만으로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 Ekman, P., *Telling lies: clues to deceit in the marketplace, politics and marriage*. New York: Norton and Company, 2001, pp. 49-79.

23) Inbau, F. E. 외, *Criminal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Gaithersburg, MD: Aspen, 2001, pp. 330-378.

24) 김고은 외,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의 심리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2013, 75-86쪽.

25) 김고은 외, 위의 논문, 82쪽.

폴리그래프 검사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전에 피검사자들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사전면담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검사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며 피검사자와의 심리적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²⁶⁾ 또한 사전면담을 통해 사건내용 및 용의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진실한 피검사자들에게는 사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충격으로부터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검사관은 면담을 통해 진실한 사람에게는 검사에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죄책감 등의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용의자들을 조건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진실집단이 거짓집단과 유사한 불안수준을 경험한다하더라도,²⁷⁾ 불안이라는 요소가 실제 검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폴리그래프 검사는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과판정에 있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폴리그래프 검사의 결과판정은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능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판단불능이라는 판정결과이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통제질문과 관련질문 간의 생리적 반응 비교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통제질문보다 관련질문에 반응이 강할수록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며 반대로 통제질문이 관련질문보다 반응이 강할 때 플러스 점수를 부여하여 거짓반응과 진실반응으로 구분한다.²⁸⁾ 최소 3회의 검사를 실시하며 각 차트

26) Nelson, R., "Scientific Basis for polygraph testing", *Polygraph*, 44, 2015, pp. 28-61.

27) 김고은 외, 앞의 논문, 82-83쪽.

28) 최효택·김희송, POLYGRAPH 검사 이론과 실무, 나래 P&P, 2005, 518쪽.

에 대한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6점 이상일 경우 진실반응으로, -6점 이하이면 거짓반응으로, -5에서 +5점 사이일 경우 판단불능으로 판정하게 된다. 판단불능이라는 영역의 설정은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와 폴리그래프 검사과정 및 결과판정 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불안이라는 요소만으로 검사결과가 오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4. 폴리그래프 검사의 수사 절차상 오해와 진실

- 1)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다를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하며, 거부할 경우 수사절차상 불이익을 당한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모든 용의자들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검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검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폴리그래프 검사과정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검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 면담 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본 검사는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 압력이나 권유 받음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며,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검사를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검사자가 결정해야 하며, 거부를 한다고 해서 수사상 혹은 법적 불이익은 없다.

2)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폴리그래프 검사의 법적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1979. 5. 22. 대법원 최초로 79도 547 판례가 내려진 바가 있다. 이 판례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받기 위해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어야 하고 그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7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피검사자가 검사 당시 의식이 명료하며 그 심신이 건전한 상태일 것, 질문표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일 것,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하여 질 것, 그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판정될 것,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혹 위의 조건이 충족된 검사가 아닐 경우 검사결과 및 그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79도 547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배경원리나 검사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 없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판독 절차 등 개별적 신뢰성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졌다.

이후, 대법원 1983. 9. 13. 83도 712 판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판단기준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 증거능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위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83도 712 판례에 의하면,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근거로 하여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판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²⁹⁾

근래에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본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 3463 판결과 1999. 12. 28. 선고 98도 4181 판결을 살펴보면, 본문 중 진술인의 신빙성 판단자료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활용됨을 알 수 있다.³⁰⁾

이와 같이, 과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 태도에서 근래에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9) 2005. 5. 26. 대판 2005도 130, 1986. 11. 25. 대판 85도 2208 등에서 대법원은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와 증거능력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0) 2003. 10. 10. 대판 2003도 3463 판결에 의하면 본문 중에 “피고인이 (중략)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더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쓰러지게 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기도 한다.”라고 판결문에 거짓말 탐지 검사결과에 대해 인용하였으며, 1999. 12. 28. 대판 98도 4181판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로 진단된다는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짓말탐지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경찰관은 검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학생은 이와는 다소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두 집단 모두 거짓말탐지 검사가 지문, 유전자 등 다른 물리적 증거물에 비해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다수가 진실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하면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진술이 다를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와 더불어 다수의 경찰관은 거짓말탐지 검사를 거부해도 수사절차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하나 대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경찰관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의뢰경험을 통해 검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가 자발적 검사이며 거부시 수사절차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학생은 주로 매체를 통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을 판단하며, 수사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모든 측정문항에서 대학생이 경찰관보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경찰관과 대학생 두 집단 모두 오래된 사건이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면 검사가 가능하며, 스스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는 거짓유무를 탐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거짓말탐지 검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성이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폴리그래프 검사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와 더불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경찰관과 대학생 간의 인식차이가 있으며 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수사장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수사관들은 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를 통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얻으려고 한다. 수사관에게 있어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는 추가 수사를 가능케 하는 단서를 제공해주며, 용의자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이 대학생보다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진 검사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칫 검사결과에 의존한 수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을 범죄에 연루시키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폴리그래프 검사가 가지

는 양면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근거 없는 맹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시민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고 유무죄를 판결하는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배심원이 된 일반 시민들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증거의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배심원에게 전달되어 유무죄 판결시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Myers 외(2006)의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에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의 영향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검사절차, 정확성 및 오류율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폴리그래프 검사의 원리와 한계점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³²⁾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정보는 실제 검사를 활용하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오해를

31) Myers, B. 외, 앞의 논문, p. 516.

32) <https://antipolygraph.org>(2018. 6. 11. 검색)

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배심원의 판결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잘못된 인식에 대한 설명은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혹은 무조건적 맹신에서 벗어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검사관련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폴리그래프 검사를 의뢰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검사 대상자가 되는 용의자들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부터 폴리그래프 검사의 필요성을 제의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 때 수사관들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가져다주어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로 수사관의 잘못된 인식이나 검사에 대한 맹신이 검사 대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사전면담 단계에서 검사 대상자들에게 폴리그래프 검사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찰에서 활동하는 폴리그래프 검사관들은 피검사자들에게 검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이 가진 모든 의문점을 해소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및 기존의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간략히 정리한 안내서 등을 제작, 제공하여 검사 대상자들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학생 집단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일반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시민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연령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선정하여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차이는 일반인 중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의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 있으며, 검사 실시 전 검사관으로부터 폴리그래프 검사원리, 정확성 및 오류율에 대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검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검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대부분이 검사를 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려 온 용의자를 대상으로 검사 후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검사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대학생의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가 정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였으며, 검사 신뢰성에 대해서도 33.9%만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얻어진 정보에는 잘못된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낮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검사에 대한 낮은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검사 정확성과 신뢰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나 추후 폴리그래프 검사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도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더불어 폴리그래프 검사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간의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거나 판례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향후 폴리그래프 검사에 관한 연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지문, 유전자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용의자들의 진술만 존재할 때 폴리그래프 검사는 진술의 진위여부와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논문접수 : 2018. 7. 31, 심사개시 : 2018. 8. 20, 게재확정 : 2018. 9. 12.〉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최효택·김희송, POLYGRAPH 검사 이론과 실무, 나래P&P, 2005.

2. 논 문

김고은 외,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의 심리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2013.

김석찬 외, “폴리그래프 검사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 연구: 검찰청 폴리그래프 실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1), 2015.

정재영 외, “상반된 주장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판별 정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2010.

최정학,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경희법학, 44(1), 2009.

3. 기타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44>(2018. 7. 17. 검색).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Ben-shakhar, G., & Kremnitzer, M., The Concealed Information Test in the courtroom: Legal aspects. In B. Verschuere, G. Ben-Shakhar,

- & E. Meijer(Eds.), *Memory detection: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Concealed Information Test*(pp.276–29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Bull, R., What is the lie–detection test? In A. Gale (Ed.), *The polygraph test: Lies, truth and science*(pp.10–19). London: Sage, 1988.
- Ekman, P., *Telling lies: clues to deceit in the marketplace, politics and marriage*. New York: Norton and Company, 2001.
- Honts, C. R., The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In P. Granhang and L. Strömwall(Eds.), *Detection of deception in forensic contexts* (pp.103–12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Iacono, W. G., The detection of deception. In J. T. Cacioppo, L. G. Tassinary, & G. G. Berntson(Eds.), *Handbook of psychophysiology*, 2nd edition (pp.772–79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Inbau, F. E., Reid, J. E., Buckley, J. P., & Jayne, B. P., *Criminal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Gaithersburg, MD: Aspen, 2001.
-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polygraph and lie detec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 Raskin, D. C., & Honts, C. R., The comparison question test. In M. Kleiner(Ed.), *Handbook of polygraph testing* (pp.1–47).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2002.

2. 논문

建内利彦 외, “犯罪捜査で使用されるポリグラフ検査に対する意識調査”. 日本心理学会第74回大会発表論文文集, 2010.

財津亘, “ポリグラフ検査に対する正しい理解の促進に向けて”. 立命館文學, 636, 2014.

Gougler, M., Nelson, R., Handler, M., Krapohl, D., Shaw, P., & Bierman, L., “Meta-analytic survey of criterion accuracy of validated polygraph techniques”, *Polygraph*, 40, 2011.

Myers, B., Latter, R., Kathrine, M., & Abdollahi-Arena, M. K., “The court of public opinion: Lay perceptions of polygraph testing”, *Law and Human Behavior*, 30, 2006.

Nelson, R., “Scientific Basis for polygraph testing”, *Polygraph*, 44, 2015.

3. 기타

<https://antipolygraph.org>(2018. 6. 11. 검색).

< ABSTRACT >

Perceptions and Misunderstandings of Polygraph Testing

- Comparis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llege Students -

Park, Hee-Jung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and misunderstanding of polygraph tests. Police officers and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on their perception about polygraphs; then, we analyzed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them. Police officers believed polygraph tests were accurate and trustworthy; however, college students displayed contrasting perceptions about polygraph tests. Moreover, college students believed that higher state anxiety may affect the results (i.e., incorrectly indicating deceptio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polygraph tests when suspects' statements are inconsistent. Incorrect perceptions about polygraph tests are discussed.

◆ Key Words : Polygraph Testing, Perceptions, Misunderstandings, Police Officers, College Students